

美 파라마운트, 10.7조 원에 UFC 전미 중계권 구입

할리우드 스카이댄스와 합병, 거대 융합미디어그룹 탄생 FCC 승인 구설수... "CBS·트럼프 소송에 합의한 덕분"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가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UFC)를 보유한 TKO 그룹과 내년부터 7년간 UFC 전미 중계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달 초 할리우드의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합병한 파라마운트가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UFC의 중계권까지 손에 넣어서 더욱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계약은 UFC의 13개 주요 이벤트와 30개 '파이트 나이트' 등 연간 전체 일정에 대한 것으로 총 77억 달러(10조7284억 원) 규모다. UFC 독점 중계권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당히 파격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명목상 '대등한 합병'이지만 실질적으로 스카이댄스가 주도권을 잡은 인수합병(M&A)에 가깝다. 새 이름이 지명도 면에서 우위인 파라마운트를 앞에 얹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컴퍼니'다. 파라마운트가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되 법적 지배 구조와 경영권은 스카이댄스 측이 차지한 구조다. 파라마운트 측 기존 경영진 상당

수는 퇴임하거나 자문역으로 전환했으며, 스카이댄스와 투자자 컨소시엄(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레드버드 캐피탈 등)이 신규 자금 투입 및 기존 자본 매입 방식에 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 합병의 의미는 방송·영화 스튜디오 제작 중심이던 파라마운트를 인공지능(AI)·디지털 제작·스트리밍·게임까지 아우르는 콘텐츠·기술 융합 기업으로 재편한 점에 있다. 이로써 전통적 제작 문화 때보다 민첩한 테크 중심의 제작·배급 방식이 도입됐으며 영화·방송·스트리밍 등 전방위 콘텐츠 역량을 통합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UFC 모든 경기는 미국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파라마운트+(플러스)를 통해 제공되며 일부 경기가 파라마운트 산하 CBS방송에서 동시 송출된다.

디즈니 ESPN이 5년간 평균 5억 달러를 지불하며 UFC 중계권을 보유해 왔으나 올해 말 계약 종료다. 파라마운트는 스트리밍 가입자에게 UFC 시청에 따른 추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가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UFC)를 보유한 TKO 그룹과 내년부터 7년간 UFC 미국 중계권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초 할리우드의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합병한 파라마운트가 UFC 중계권까지 거액에 확보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SPN+에서 일부 프리미엄 경기에 적용했던 유료 시청(PPV) 방식 자체가 폐지된 셈이다. TKO 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 마크 사피로는 "PPV 모델이란 과거의 유물"이라며 "파라마운트+에 월12.99달러만 내면 UFC 전체 경기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UFC 경기는 연중 내내 열리기에 다른 스포츠보다 시즌 종료 후 구독 해지 가능성이 작아 스트리밍 서비스 주체 입장에선 안정적 수입원이다. 파라마운트는 UFC 국내뿐 아니라 국제 중계권도 손에 넣고자 움직이고 있다. 국제 중계권은 매년 약 3분의1 갱신되며 파

라마운트가 각국의 중계권 만료 때마다 30일간 독점 협상권을 가지게 됐다. 영화 '대부' 등의 제작사로 유명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CBS-MTV 등을 보유한 파라마운트는 케이블TV와 전통적 의미의 방송 사업을 통해 성장했으나 뉴미디어의 약진 이래 다른 기존 미디어 기업들처럼 고전해 왔다. 시청자들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2014년 파라마운트+를 런칭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지만 승부는 무엇을 스트리밍해 소비자를 끌어모을 것인가에 달렸다.

신임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이 기술 중심의 콘텐츠 배포, AI 활용, 스트리밍 플랫폼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며 AI면역가상 제작 등 신기술 접목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을 비즈니스인사이드와 여러 외신이 일제히 지적해 왔다.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의 기대감으로 파라마운트 주가가 소폭 상승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기술융합과 스트리밍 경쟁력이 실효성을 보인다면 기업 가치 회복 여지가 클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논란도 있다.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

련 소송을 함으로써 종결된 덕분에 이번 합병이 성사됐으며 언론의 독립성 훼손 위험성을 여러 매체가 지적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내부적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FCC가 지난해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CBS뉴스에 '옴부즈맨 도입' 등을 요구한 것은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와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이 파라마운트 산하 CBS뉴스의 일부 진행자와 제작진을 상대로 벌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측은 CBS가 트럼프와 그의 사업·정치 활동을 다룬 보도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대선 운동과 (2021년 발생한) 1·6사건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았다. 소송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형식으로 제기됐으며, CBS가 1600만 달러(216억 원)를 트럼프 퇴임 후 도서관과 법률 비용에 지불하기로 합의됐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측은 CBS의 유서 깊은 인터뷰 '60분'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 인터뷰를 실체보다 달변가처럼 편집해 내보낸 것도 '허위사실 유포' '선거 개입'으로 기록했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트럼프, 관세 휴전 90일 추가... APEC 미·중 정상회담 기대 '솔솔'

발효 직전 '연장' 발표... "중 빨리 미국산 대두 주둔 4배 늘리길" 가상화폐 시장도 안도... 비트코인 12만 달러 육박 거래율 17%↑

세계 경제의 중요 변수로 주목받은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 휴전'이 '세 달 연장'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5월 합의한 후 90일간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90일 추가 연장'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미·중 관세 전쟁 재개의 '파국'은 일단 피한 셈이다. 또한 양측이 무역 갈등의 소지를 11월9~10일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히기로 함에 따라, 10월 말~11월 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가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 기대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가 관세를 115% 가운데, 4월10일부터 피차 경쟁적으로 부과한 91%p 최후 적용을 90일간 더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미국 대통령 쪽에 있음을 대통령 본인과 당국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발(發) '선제 공격' 이후 보복·맞대응의 주고받기 식 관세율 올리기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미·중이 5월 제네바 제1차 고위급 무역회담 때 115%p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어도 중국 측에 매겨진 이른바 '펜타닐 관세 30%'는 그대로다.

완제품(펜타닐 및 유사 합성오피오이드)에 20%, 전구물질 합성 장비 등

에 10%이므로 (대미)145%→30%, (대중)125%→10% 상태가 된 것이다.

이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자 6월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이어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양측 대표가 세 번째로 만났다.

3차 미·중 무역회담을 통해 양측은 '관세 부과 유예 90일 더 연장'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미루다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글로 발표했다. 아울러 "난 중국이 빨리 (미국산) 대두 주둔을 4배로 늘리길 희망한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재촉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별 관세(명명 상호 관세) 작전에서 가장 불편한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추가 연장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일부나마 줄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이 모든 게 무역 문제를 넘어 '정치'라는 사실도 이미 널리 인식됐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대외적 입장이 기본적으로 '파주기'였으며 그 제한에 도달했음을 트럼프는 수없이 언급해 왔다. 무역적자와 천문학적 적자재정을 달러를 찍어 버렸으니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수십 년 이래의 관을 다시 짜려는 시도인 것이다.

트럼프의 '달러 연동 가상화폐 구상'도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 지속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이래 가상화폐는 늘 미·중 관계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5월 미국이 대중 관세 145%를 30%로 내리고 중국 역시 대미관세 125%를 10%로 인하한 90일 휴전 합의 발표 직후 비트코인은 약 1.25% 상승한 10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휴전 추가 연장 소식에 비트코인은 약 2% 상승해 한때 11만9000달러까지 치솟았고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도 17% 급증했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인 셈이니 시장이 안도했음을 뜻한다. 가상화폐는 관세 소식 등 '단기적 이벤트'에 즉각 반응하며 장기적으론 금리·규제·인플레이션·상장지수펀드(ETF) 유입 등 복합적 요인에 좌우된다.



지난달 28~29일 제3차 미·중 무역회담을 위해 스웨덴에서 만난 스톡 베스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핑 중국 부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여부가 관심을 끌다가 11일(현지시간) 발효 직전에 '연장'이 발표됐다. 연합뉴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아스팔트에서 산화한 열사 김시립표 월약산 도라지즙

60봉지 1상자
70,000원

사은행사 4상자
3+1
210,000원

4개 묶음배송
무료배송

파로배송시
각, 4천원씩
택배비 추가

김시립 목사님 사모-남경우
농협계좌 356-1421-4451-03
입금후 문자☎010-2387-9937

도라지
桔梗

동의보감
東醫寶鑑

도라지
엑기스

동의를보감(東醫寶鑑 허준 65세 완성)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으로 구급용 언해본 편찬 중 선조의 사망에 대한 죄를 물어 귀양살이와 복귀함을 반복하며 1610년(광해군 2) 25권 완성 ▶ 동의보감 길경(桔梗)-청폐거담(淸肺祛痰 맑은 폐 가래제거) (熱邪 祛邪) 기촉(氣促 호흡이 가쁜 것) 폐열(肺熱 폐질환) 면적(面赤-충열) 해수(咳嗽-가래) 비건(鼻乾-코 마름) 비늑(鼻-코피) 흉통(胸痛-가슴통증) 천축(喘促-기침하고 숨이가쁨) 객혈(咯血-기침에 피를 토함)